

하루 첫 말 감사·기쁨 표현... 베풀며 감사한 마음으로 유대인 일상 통해 배우는 현대사회 행복 지침



리더의 책장

전 비 호 前 멕시코·불가리아 대사



죽기 전에 한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랍비 조셉 텔루스킨 지음, 김무경 역, 북스넛, 28000원.

최근의 국제정세, 국제경제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떤 DNA를 갖고 있길래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늘 궁금했다.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이며 학자인 랍비 조셉 텔루스킨이 쓴 '유대인 가치의 책' (The Book of Jewish Values, 번역서 제목; 죽기 전에 한번은 유대인을 만나라)은 이러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일 년 52주 365일간 유대인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침서이다. 오늘은 며칠 전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읽었던 이 책의 몇 구절을 떠올려 본다.

8일째: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라.

베풀면 내가 기분 좋고, 남이 기분 좋으니 나 자신 두 배로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스콧은 최근 약 3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500여 개 단체에 이미 7조를 기부했다고 한

다. 기회만 되면 베풀겠다는 그녀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법정 스님은 평소 '무소유'의 참된 진리를 설교하시면서 2010년 입적하시기 전 '내 것이 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써 달라'라고 하셨다.

베풀고 내려 놓을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해 질 수 있다.

213일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유대인의 전통은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하루의 첫 말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랍

비 버크셔의 말처럼 나는 내가 숨 쉬는 공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나를 따뜻하게 해 주는 태양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56일째: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랍비 조셉 텔루스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로자로 부터,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로 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설교했다. 다양함의 하모니!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남을 존중한다면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베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모두 동참해 보자.

-전비호 前 대사는 다음 글쓴이로 운영선 前 관세청장을 추천했다.

유대인 사상, 현대사회 국제정세·국제경제 크게 영향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사회 동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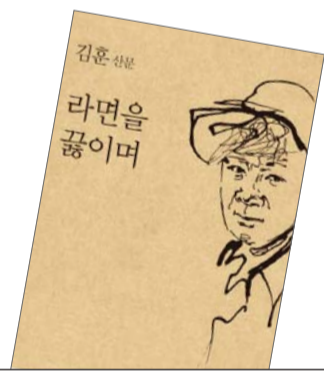


주말은 책과 함께

유행가처럼 편히 즐기는 산문

근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발견한 기현상(?)이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부르는 노래도 참 다양하다. 천년바위(진성),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영탁), 동백아가씨(이미지), 버터(방탄소년단), 롤린(브레이브걸스) 등 자주 들은 노래 중 제목을 아는 것만 적은 게 이정도다. 어떤 날은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때도 있다. 필자는 멜로디와 후렴구 한 두줄 겨우 외는 수준이라 가사를 전부 암기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보였다.

기억력이 안 좋지만 누가 톡 치면 랩처럼 바로 내뱉을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다. 김훈이 쓴 '라파엘의 집'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술집 골목에는 밤마다 지식인, 예술가, 언론인들이 몰려들어 언어의 해방구를 이룬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논하며 비분강개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습버릇이다. (중략) 술 취한 지식인들은 이 '라파엘의 집' 골목을 비



라면을 끓이며

김훈 지음/문학동네

틀거리며 지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 한 닢을 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백포함 609자의 짧은 글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만년필로 필사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이상한 마력을 지녔다. 책에는 '라파엘의 집'을 포함해 총 53편의 산문이 실렸다. 가방에 넣어두고 틈날 때마다 읽어 보길 권한다.

412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ik1@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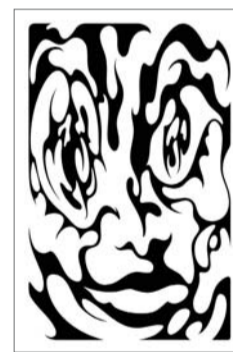
법은 국가나 민족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권·평등권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보루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돈과 권력 앞에선 자주 빌빌거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가난을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럼에도 법은 심판대에 선 적이 없다. 책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의 역사를 법정에 세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는지, 힘 있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등 법의 이름으로 선언한 진실의 실체를 낱알이 까발린다.

292쪽, 1만4800원.

고어 자본주의

시아크 발렌시아 지음/최이슬기 옮김/위크롬프레스



책은 부를 생산하는 도구로써 자본주의와 공모한 폭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는지 살핀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신체를 파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내장을 전시하는, 살아 있는 '몸'을 대상으로 한,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이다. 그것이 어떻게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으로 변해 전 세계에 유통되고, 부를 생산하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됐는지 저자는 설명한다. 책은 몸의 훼손을 극대화하는 고어적 행위가 이미 스크린을 뚫고 나와 인간을 옥죄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을 완전한 치사 상태에 빠뜨리는 스너프의 단계로 신속히 이행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120쪽, 1만9000원.

디지털 문해력

주니어미디어오늘 지음/인물과사상사



"어른들이 보는 뉴스는 '웁'하고 '노잼'이에요." 디지털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자녀를 둔 부모는 숙제를 한아름 안는다. 스마트폰은 언제쯤 사줘야 하는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줘도 될지, 자녀가 유튜브나 틱톡에 무방비하게 노출돼도 괜찮은지,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걱정거리가 한가득이다.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기에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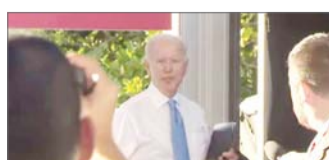
책에는 유튜브의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는 법, 슬기로운 인스타 생활 첫 걸음,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스마트폰 시간 관리법 등 디지털 세상을 현명하게 헤엄쳐 나갈 지혜가 담겼다.

200쪽, 1만5000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직원 임금체불' 싸이월드 전 대표...1심 벌금 800만원
▲아웅산 수지 변호인단, 檢 증거 채택 반대...내달 26일 이전 결론 /사진 뉴시스



▲홍콩 경찰, 반중언론 핑귀르바오 급습...편집장 등 체포
▲취재진에 '버럭'한 바이든...“좋은 기자는 비판적” 사과 /사진 뉴시스

▲청와대, “한일정상 회동 무산 아쉬워...日과 대화 협의 지속”
▲유엔총장,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정전 협정 준수 재촉구